



랑가 뿌르바야 작 'Landscape Of Deception-국군광주병원'



정정주 작 '전일빌딩'

빛·역사·공간 잇는 다양한 의미들

ACC 문화창조원서 '라이트 온 더 무브' 전 광주 정정주·인니 랑가뿌르바야 작가 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문화·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21일부터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라이트 온 더 무브(LIGHT ON THE MOVE)' 지역·아시아 작가 매칭전을 개최한다.

작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빛, 역사, 공간'이란 키워드를 추출하고, 광주 지역작가와 아시아 작가를 매칭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같은 면서도 다른 관점과 표현을 고찰하는 전시다.

전시는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광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시 기획 단계에서 광

키워드와 함유된 설치,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전시명인 '라이트 온 더 무브'가 움직이는 빛을 의미하듯, 전시는 두 작가가 빛을 직접 움직이거나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프로젝션 방식을 사용해 근현대사의 민주화 과정 속 역사적 공간과 기억을 연결하고 상기시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나라는 다르지만 아시아 근현대사의 아픔을 국내외 대중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내 공감한다.

광주에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빛이 아시아 도시들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과 아시아 작가가 각각 어떻게 자신들의 이야기와 삶의 관점을 보여주는지 고찰해

보는 장이다.

매칭된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문화기반조성과,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합병병원,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북원전담팀 등의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전일빌딩, 구 국군광주병원, 구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신작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문의 1899-5566. /이연수 기자

송은일 작가가 들려주는 '매구할매' 이야기 오늘 용아생가서 '신비하고 강력한 할매들' 강연

광산구 소촌동 용아 박용철 시인 생가에서 19일 소설 '매구할매'로 알려진 송은일 작가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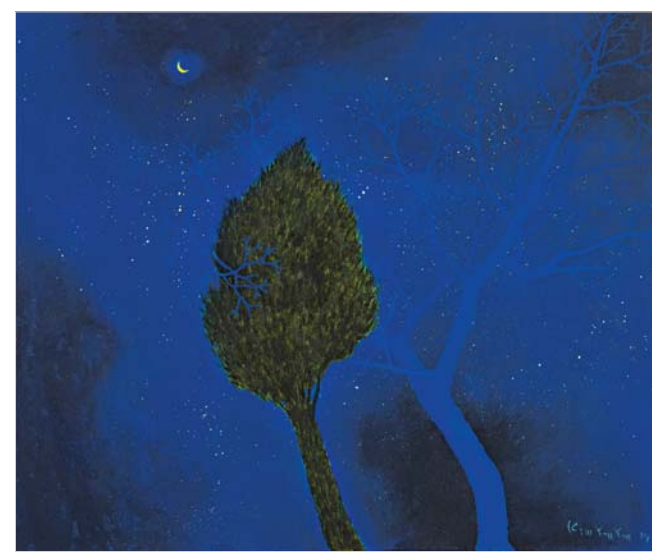
'신비하고 강력한 할매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연회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의 하나인 '시인의 세계 시선'의 6월 행사다. 광산구는 주제가 있는 시·문학 강연과 공연으로 박용철 시인의 업적을 기리고, 뜻을 계승하고 있다.

강연에서 송 작가는 고향 할머니들의 삶과 애환을 허구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매구할매'를 중심으로 여성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매구'는 천년 묵은 여우가 변해한다는 전설의 짐승을, '매구할매'는 나이와 더불어 지혜를 얻은 사람을 뜻한다.

강연과 함께 지역에서 활동 중인 '너울 예술단'이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춤 매구



송은일 작가
공연을 펼친다. 강연 후작가 사인회도 이어진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월봉서원 홈페이지,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827), 광산문화원(062-941-4477). /이연수 기자



'생성'

한 편의 신화 읽듯 '생성'의 힘

도화현미술관 김영양 개인전

고흥 도화현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작가 김영양 개인전이 6월 한달간 도화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영양 작가의 주제는 생성(生成)이다. 생성은 생명을 가진 모든 사물을 태어나게 하는 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비로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작가의 그림을 들여다보면 보이고 느껴지는 평면이기는 하지만 생각하면 만드는 작업이 생생이런 확장성으로 발전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30여점의 작품은 평면 작업을 중심으로 산과 하늘, 폭포, 강, 바다, 별 등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

며 한 편의 신화를 읽는 듯하다.

작업의 모태는 모성이다. 모성의 현재 이전에는 음·양이 있었고, 자궁을 잉태한 신화가 자리한다. 아주 먼 옛날 신화 속 마고 할머니는 오줌을 썼고, 그 오줌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었으며 오줌에 구른 돌들이 서로 구르고 부딪혀 산과 산맥을 구성했다. 작가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고 정리해 신화 속 이야기를 작업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작가는 목포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4회와 김환기국제미술제, 한국국제미술교류전, 한중교류전, 100인의 희망전, 풍경을 보는 여섯가지 시선 등 150여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832-1333. /이연수 기자

르네상스·미국·한국의 색채를 노래하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평화의 합창' 이창호·변진환 지휘자 협연...20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79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합창'을 선보인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현재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활동 중인 이창호, 변진환 지휘자와 함께 르네상스 합창곡부터 미국 현대 합창곡, 흑인 영가 그리고 우효원 작곡의 '건곤감리' 등 다양한 장르와 색깔의 합창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뉴욕 시립 대학인 Lehman College와

Kean 대학의 음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변진환 지휘자는 전반기 Ola Gjeilo의 곡 중 3곡은 아카펠라로, 1곡은 반주가 있는 합창음악으로 연주한다.

'Northern lights'는 노르웨이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를 표현한 것으로 노르웨이 사람으로서의 정서를 투영한 곡이며 4성부 아카펠라로 전통 미사의 라틴어가 사를 사용한 'Ubi caritas', 8성부 아카

펠라곡으로 우주의 행성과 별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작곡된 'The Spheres', 마지막 곡으로 '하늘과 땅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 하시나이다'로 시작되는 반주를 포함한 4부 합창곡 'The Ground'가 연주된다.

후반부는 젊은 미국의 작곡가들의 곡으로 'Five Hebrew Love Songs', 'Nearer my God to thee'를 들려준다.

필라델피아 마스터 코랄의 예술감독과 지휘자, Haverford & Bryn Mawr College의 객원교수로 후학에 힘쓰고 있는 이창호 지휘자는 특별히 미 지역의 각종 합창축제, 전국 음악교육자협회, 전미 합창지휘자협회 및 세계 합창 심포지엄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흑인영가 작품들을



변진환 지휘자 이창호 지휘자

선보인다.

태극기의 4괘(건·곤·감·리)에 담긴 한민족의 이상을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창조 의 정신으로 이미지화시킨 4악장 구성의 '아! 대한민국'으로 이날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석 1만원. /이보람 기자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7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